



별무리

서현철

내가 열차에 오른것은 늦은저녁이었다.

열차가 출발하고 자리가 잡히자 나는 마주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출발역이어서 그런지 좌석은 거의 비어있 다싶이 하였다.

나의 옆에는 지성미가 느껴지는 20대의 청년이 어둠속에 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에 시선을 두고있었고 그앞에는 몸이 등실한 중년녀인이 손전화기오락에 열중하고있었다.

나의 눈길은 이상하게도 어딘지 낮이 익은듯 한 청년에게로 자꾸만 쏠리었다. 어디서 보았는가를 더듬었으나 좀처럼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키운 제자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려도 보았다.

나는 끝내 그 청년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무는 어디서 일하오?》

청년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 어쭙은 미소가 어리었다.

《전 표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합니다. 이번에 학위학직수여식에서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반가움에 차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 동무도...》

《예. 크게 한일도 없이 석사학위를 받았습 니다.》

《축하하오. 연구사동무!》

나는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고맙습니다.》하면서도 청년은 웬일인지 낮색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는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무슨 일이 있었소?》

창가에서 눈길을 거두며 공손한 눈빛으로 청년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오?》

《명천까지 갑니다.》

《명천? 현대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오?》

《사실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음...》

나는 생각에 잠겨 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성공을 소원한다.

그 성공이란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여서 살을 저미고 뼈를 깎아내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런 배가의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안아오기마련이다.

하지만 결코 성공의 열매가 다 달리는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 어떠한 열매도 내놓지 못한 과학자들이 결코 없지 않다. 무엇때문에? 자기의 연구과제를 잘못 선택해서인가?

나는 내가 알고있는 한 과학자의 얼굴이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해빛밝은 대학의 교정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청년, 한책상에 나란히 앉아 학우로서 다정했고 또 나의 승벽심에 부채질을 해주며 수재로 소문났던 한성근이의 모습이였다. 늘 말이 없고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던 그였으나 새것에 민감한 청년대 학생들은 누구나 그를 알았고 그의 이름이 화제에 자주 오르군 하였다.

그의 운명에 갑자기 그늘이 지게 되리라는것을 그때로서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그때로부터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에 팽이처럼 돌아치다보니 나는 그후로는 한번도 성근이를 만나보지 못했다. 하지만 과학계에 한번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그에 대해 생각할 때면 미안한감도 없지 않

다.

(그때 내가 억지로 잡아끌어서라도 다른 길에 세워주었다라면 능히 성공하지 않았을가.)

승객들은 이미 잠들어서 주위는 조용했고 이따금씩 렬차가 서게 될 역이름들을 알려주는 렬차방송원의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참, 내 이야기 하나 해도 될가?》

나에게로 쏠리는 눈길을 받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두운 장막을 헤치며 쉬임없이 달리는 렬차의 단조로운 바퀴소리는 이제는 아득한 옛일로 되어버린 그 시절에로 끝없이 나를 이끌어갔다.

…대학졸업후 내가 그를 만난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어느 봄날이었다.

평양역앞, 봄비는 군중… 그가운데를 헤집으며 활달하게 걸어오던 그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날 나를 맞아주던 그의 모습은 열정적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무작정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에게 이끌려가며 이 사람이 대학동창인 성근이가 맞는가 하여 다시금 눈여겨보기까지 하였다.

대학시절 그는 기숙사식당외에는 다른 식당문을 열어본적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것이다. 나는 그가 자기가 맞이하게 될 어떠한 큰 사변앞에서 몹시 흥분하고있음을 알수 있었다.

성근이가 맥주고뿌를 쳐들었다.

《자, 상봉을 축하해서…》

나는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먼저 이야기해주게, 무엇이 동무를 이렇게 흥분시켰는지.》

나의 말에 그는 좀 당황해하더니 이윽고 어색한 웃음을 얼굴에 담으며 들었던 고뿌를 식탁에 도로 내려놓았다.

《동무눈은 못 속이겠구만. 그렇네, 난 지금 내가 올라야 할 아득한 상상봉에 바줄을 건 심정이네. 그 길이 10년이든 20년이든 난 멈춤없이 가려네.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난 꼭 해내고야말겠네. 동무생각은 어떤가. 내가 할수 있을것 같은가?》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마치도 나의 대답에 성공여부가 달려있기라도 한듯 간절한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아직은 그가 하려는 일(아마도 그것은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에 대해 알수 없지만 나는 그의 뛰어난 두뇌를 믿었다.

《동무가 하는 일이라면 눈우에서 자라는 작물을 연구한대도 믿겠네. 헌데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몹시 궁금하구만.》

《아차, 미안하네. 난 사실 스버섯인공재배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맡았네.》

《?!》

나는 정말로 놀랐다.

스버섯을 인공재배하다니… 이미 스버섯인공재배는 발전된 나라에서도 연구를 해오고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성공의 담보는 없었다.

《자네 지나친 욕망이 아닌가?》

나의 말은 그를 몹시 섭섭하게 해준듯싶었다.

《물론 성공의 담보는 없네. 이제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20년이 걸릴지 아니, 그보다 더 걸릴수도 있지. 하지만 난 결코 물러설수 없네. 과학자의 량심으로 말일세. 지금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을 그 어떤 명예나 보수의 발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네. 그러다보니 자그마한 성과에도 만족을 느끼고 편안한 연구과제에만 매달려있지.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떠지는데도 말일세.》

나는 그렇게 심각한 성근이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내가 반대한다고 동무가 물러서겠나? 이왕 떠난 길이니 한껏 달려보라구. 자,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이 잔을 내세.》

우리는 이미 거품이 사라진 맥주를 마셨다.

그후부터 나는 여러 과학잡지들은 물론 신문에 학위학직수여자들에 대한 기사가 실릴 때면 그의 이름을 애써 찾으려 했고 또 그의 이름이 나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두번째로 만나게 된것은 그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과학잡지에서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과학자가 쓴 논문을 읽던 나는 깜짝 놀랐다.

반세기이상의 피어린 탐구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나에게 너무도 큰 허무감을 안겨주었던것이다.

얼마후 나는 출장기회에 그를 찾아갔다. 누가 떠밀었거나 그 어떤 권리가 있어서 찾아간것은 아니었다.

그때 나에게서는 그를 체때에 일깨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듯이 생각되었었다.

나는 교외에 자리잡은 그의 실험실에 들어섰다.

해빛을 가리운 방은 어딘가 칙칙해보였다.

탁상등이 만들어주는 자그마한 공간안에서 등을 구부리고 그 무슨 실험에 열중하고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씨엉씨엉 걸어가 창가림을 와락 제껴버렸다.

맑은 유리를 거침없이 뚫고들어온 무수한 해살들이 그의 지배하에 있던 자그마한 《세계》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별로 놀라는 기색이런 없고 웅당 와야 할 사람을 보는듯이 무심했다.

10여년전의 평양역앞에서 보았던 그 호기있던 모습은 그에게서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보았나?》 나는 잡지를 녀두에 두고 물었다.

《…》

《이제라도 달리 선택하게. 난 오히려 시버섯인 공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그 학자의 논문이 자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줄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네. 어떨가?》

《…》

《말 좀 하게. 대체 뭘 생각하나?》

그는 나에게 등을 돌려댄채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달리 선택하랴구?! 왜 그들이 못한다면 우리도 머리를 끄덕여야 한단 말인가?》

나는 꼭 대학시절의 성근이를 보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나친 자존심은 인간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법이다.

론문을 발표한 학자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생물학 분야에 권위가 있는 학자이다. 이런 사람이 과학계에 던지는 말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물며 반세기이상의 탐구의 총체인 그의 결론이야말로 진리라고 보아도 무방한것이 아니겠는가.

새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발명도 가치있는것이지만 인간의 힘이 가닿지 못하는것을 제때에 증명하는것도 그에 못지 않는 가치를 가진다. 그러한것들은 바로 과학이 전진하는 길에서 라침판과도 같은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성근이가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소총명으로부터 오는 자존심, 명예심으로부터 오는 부질없는 고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자넨 지금도 확신한다는거지?》

나는 곧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했다. 이미 얼지른 물이었다. 이제껏 후줄근해서 앉아있던 성근의 성난 눈길에 나에게로 날아와 박혔다.

《아니, 그게 중요하게 아니야!》…

《그날 우리는 서로의 견해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헤어졌지. 난 그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후회했소.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이끌어주지 못한걸 말이요. 하여튼 과학탐구의 성과도 객관성을 무시하면 안된다는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 나의 이야기에서 청년은 충격을 받은듯 했다.

《저도 지금 한 과학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고무땀선처럼 붕 떠있던 저의 마음속에 보석같은 귀중한것을 심어준분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소?》

흥미라기보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귀중히 간직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긴듯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

던 때부터 해야 할것입니다. 사실 대학졸업을 앞두고 저는 포부가 컸었습니다. 대학시절에 이미 저는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소론문을 잡지에 발표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졸업시에는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가질 명예는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을 선생님은 이해하실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름을 떨칠수 있는 큰일을 하고싶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분이 한아름이나 되는 실험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한생이나 같았습니다.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그러나 한생을 바친 몸부림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통채로 안겨주는 심정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고싶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순간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무의미한 삶이라고… 이녀석, 똑바로 새겨들어라. 우리 과학자들에게 자신을 위한 과학의 길이란 없다. 당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과학자로 내세워주었는데 그 믿음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그 길에 바로 참된 과학이 있다. 참된 과학은 곧 애국의 길이야.〉

저는 할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저는 그 실험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보다도 과학적인 증명으로 거절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과학계는 그분의 연구에 대한 불가능을 증명한지가 오래되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가 알지 못하는 연구성과들이 갈피마다 수득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그 한장한장을 펼치며 저는 이제껏 오해하며 살아왔던 그분의 한생의 무게가 느껴져 눈시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과학자에게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우리 과학자들은 당에서 바라는 문제라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

론문을 위한 논문, 명예와 리기심이 비긴 종이장의 글들은 몇백몇천권이 있어도 소용없다. 당에서 심려하는 문제, 가장 절실하게 풀어야 할 문제, 바로 여기에 우리 과학자들의 선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저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또 그럴 의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생각에 잠겨버렸다.

《정민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청년의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비

켰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다시금 찬찬히 바라 보았다. 그 순간에 나는 그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낯익어보였는가를 깨달았다. 그에게서 성근의 모색을 찾아보았던 것이다.

《그러니 자넨 나를 알아보았구만.》 청년은 웃고 있었지만 나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내배고있었다.

교육자로서 수십년을 과학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가르쳐온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처음으로 되는 잘못된 《강의》였다.

청년은 나에게 부디 자기 아버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행동으로 우리 시대의 과학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있었다.

과학계에 성근의 존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에서 바라는 문제는 자신의 한생을 바쳐서 또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의 한생으로 말없이 가르쳐주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청년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었소.》

《고맙습니다.》

나는 진정이 어린 어조로 청년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오?》

《지금도 연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나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채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오늘따라 나의 눈에는 밤하늘에서 반짝이고있는 별들이 그지없이 아름답게 비껴들었다. 누가 보지 않는 깊은 밤에도 자기의 몸을 깡그리 태워 이 세상에 빛을 더해주는 저 수많은 별들가운데는 성근이의 모습도 보인다.

나도 비록 늦은감은 있어도 그 별무리속의 하나가 되고싶었다.